

제12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3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50회)

제12편
 소사신앙촌시대 <제3부>
 一. 밀실(密室)
 二. 밀실의 역할
 三. 밀실에서 삼신일체(三神一體) 일인출(一人出)된 조희성님
 1) 아담이긴자인 구세주 후보자
 2) 사랑의 신인 나라는 주체의식과 생명을 건투쟁

三. 밀실에서 삼신일체 일인출된 조희성님
2) 사랑의 신인 나라는 주체의식과 생명을 건투쟁

이와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 다른 곳의 사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쪽 산에서는 이처럼 아슬아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쪽 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다시 말하면 이때의 기장신앙촌의 영모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셨는가?

1980년경의 기장신앙촌의 영모님은 예수는 가짜 구세주요, 영모님은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곧 다시 당신은 천상천하의 유일한 상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어 모두들 마음을 가다듬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있던 때였다.

당시 기장신앙촌의 영모님은 부도가 나게 생겼다가 응급 처방으로 특별 구판부(購版部)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 대우빌딩 23층에 신앙촌 특판부 간판을 걸고 구판(購版)업무를 시작하였다. 1980년도 당시의 우리나라는 경제부흥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던 시절은 끝이 나고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였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 없고 재벌기업들도 불황으로 만든 물건을 팔지를 못하여 큰 곤경에 빠져 있던 그런 시절이었다. 영모님은 이것을 노렸다. 각 회사에서 만들고 팔지 못하는 품질 좋은 제품

을 싸게 구입해서 전국소비조합을 통해서 팔겠다는 계산이었다. 전국에서 한다하는 기업체들은 이 소문을 듣고 신앙촌 구판부로 몰려 들었다. 우리는 쓸만하고 잘 팔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제품은 몇개월짜리 어음을 끊어 주고 우리 신앙촌 상호를 달고 납품을 받아만 준다던 어떤 조건이든 거의 다 응해주었다. 재벌의 모회사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한 '스타인벡' 피아노를 원가로 줄 터이니 납품받으라고 연일 찾아온다. 그래서 샘플로 그랜드피아노 한 대를 기장신앙촌에 보냈더니 영모님이 "내가 한 대 팔아주지"라고 하시면서 그 피아노를 사서 제단에 놓으셨다.

1980년 4월경 날씨가 제법 쌀쌀했던 때였다. 기장신앙촌에서 급한 전화가 대우빌딩 특판부로 걸려왔다. 정말 놀랄 일이 생겼다. 영모님께서 서울로 올라가신 후 행방을 알 수가 없으니 빨리 서울의 관장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찾아보라는 전화이다. 영모님이 며칠째 가신 곳을 알 길이 없다는 내용이야. 무슨 이런 일이다 있는가? 그 내용의 시말은 다음과 같다.

갑자기 영모님이 당신의 집무실에서 예고도 없이 10번 앞에 내려오신 것이다. (10번은 영모님택 전용 경비실 번호다) 그 앞에 하나님이 나오시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그때의 영모님의 얼굴은 잔뜩 노하신 얼굴 모습이였다. 그와 같은 표정을 하신 영모님은 돌연 큰소리로 "온 천지가 불바다가 돼! 불바다가 된단 말이야!"라고 호통을 치시는 것이다. 그리고는 운전수 차집사를 불러

차를 타셨다. 수행 경비원들이 뒤따라려고 하자 영모님은 "한 놈도 따라오지 마라!"라고 호통을 치시고는 서울로 직행하였다. 서울 광화문 쪽에 오시더니 차를 세우라고 하시고는 운전수 차집사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기장으로 직행해 가라. 만일 뒤돌아보든가 백미러를 통해서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라고 호통을 치시고는 운전수 차집사를 기장신앙촌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영모님 혼자 어디로 가셨는지 그후 1주일 동안 영모님의 행

해를 입은 여자(박태선 장로)의 해산 삼위일체 하나님 회복시 절체절명의 순간

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누가 영모님을 찾다고 찾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루는 당시 서울 7중양관장이던 한형만 관장이 대우빌딩 구판부에 피아노 상담차 왔다. 상담 중에 전화가 걸려 왔다. 조철구의 전화였다. 전화를 받은 한관장은 당황하는 기색이다. 그리고는 피아노 문제는 다음에 상의 하려고 하고는 급히 코트를 걸치고 가려고 한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지금 7중양에 영모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이다. 한관장이 7중양에 가보니 난리가 나 있었다. 영모님은 춤다고 고래고래 소리치시면서 호통을 치고 계시고 조철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찢찢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영모님이 서울 7중양에 오실 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조철구의 말에 의하면 7중양 앞에

서 무엇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택시 한대가 멈추면서 누군가가 "한관장 있나?"라고 하는 것이다. 조철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조철구는 "누구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분은 "철구야 나야!"라는 것이다. 조철구는 힐끔 쳐다 보면서 "누구신지?"라고 다시 물었다. 그랬더니 "나라니까"라고 하시는데 그때서야 그 음성이 영모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짹짹 놀란 조철구는 급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안으로 모셨다. 사실 그때의 영모님의 모습은 몰라보는 것이 당연했다. 깔끔하기 이를 데 없는 영모님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 모습은 너무나도 수척해 있어 차마 그분이 영모님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집안에 모신 후부터는 영모님은 계속 호통을 치시는 것이다. "추워서 못 견디겠으니 난로를 있는 대로 갖다가 피워라" 조철구는 "네!"하고는 급히 여기저기서 난로를 찾아 난로 두대를 피웠다. 그랬더니 "난로 열대를 피워! 추워서 못 견디겠다"라고 호통을 치신다. 조철구는 간신히 두 대를 더 가져다가 피워 드렸다. 그래도 영모님은 춤다고 열대의 난로를 더 피우라고 야단이다. 다급해진 조철구는 깨끗한 이불을 가져다가 덮어드렸다. 그래도 영모님은 춤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다. 이런 와중에 조철구는 대우빌

딩 구판부로 한관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1주일 동안 이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다가 이 지경이 되어 오신 것일까?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된다고 호통을 치시고 사라졌던 이분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불바다가 되는 것을 막고 오신 것일까? 얼굴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상하셨고 또 지금 춤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계신 영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무엇 때문에 이런 집고(疾苦)를 겪어지고 가시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뒤에 들은 말이지만 이때 영모님은 어떤 호텔에 묵으시면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피를 대야로 계속 쏟으시면서 사경을 헤맸다고 한다. 항상 욕실은 피바다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해서 그 호텔 지배인이 직접 와서 상황을 알아보고 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후 기장신앙촌에서 사모님 등 여러 사람이 와서 영모님을 모셔갔는데 영모님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기장에는 절대 안가! 내가 왜 기장엘 가? 절대 안 간다"라고 하셔서 몇 시간을 실갱이를 하면서 사정을 했지만 절대 안가신다고 하심으로 할 수 없이 강제로 불러서 차에 태워서 간신히 기장신앙촌으로 모셔갈 수가 있었다.

그분은 왜 기장신앙촌에 안 가시려고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하신 것일까? 온 세계의 마귀가 가장 죽성리에 총집결해 있다고 말씀하신 영모님, 그 집결된 온 천하의 마귀는 생수 먹은 신앙촌 사람들 속에 무량대수마귀가 들어가 영모님을 포위하고 있으니 영모님께서 그 마귀 소굴로 가실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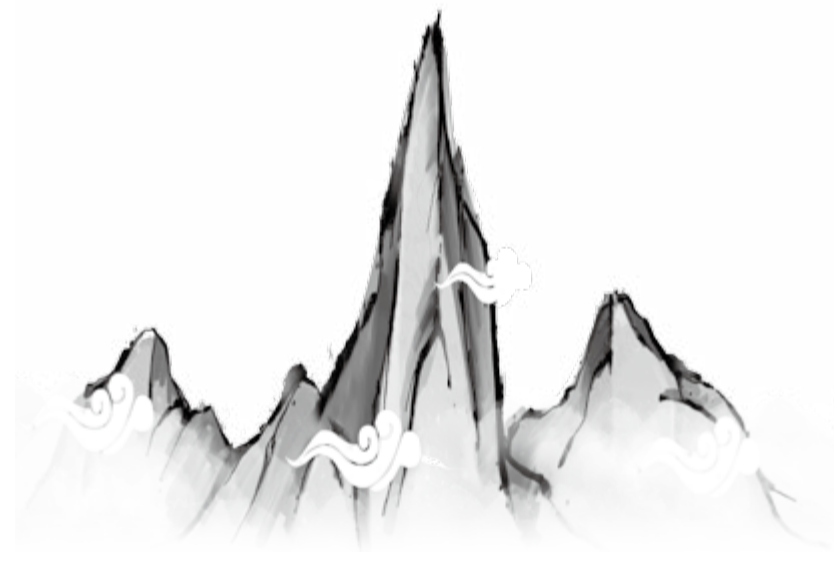
끔찍하셨던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보자. 예정된 구세주이신 조희성님은 밀실에서 "사람으로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통곡하시다가 만사를 포기하시고 목숨을 끊으시려고 목뿔 끈을 찾고 계셨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는 남침하려는 북한군 전투기 50여 대가 하늘로 이륙을 하였고, 반면 기장신앙촌에서는 영모님이 "온 천지가 불바다가 돼" 하시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그동안 영모님은 묵고 계신 호텔에서 피를 대야로 쏟으시면서 몸부림을 치고 계셨다. 그때 영모님은 목을 매 죽으려는 조희성님에게 분신으로 오시어 조희성님을 붙들고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구느냐!"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러자 조희성님도 영모님을 붙들고 울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라며 통곡을 하셨다. 우리는 다급해 하시던 이 두 분의 처절한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6000년간 준비하신 하늘의 계획이 지금 수포로 돌아가려는 긴박한 순간을 맞은 것이다.

결국 예정된 구세주 조희성님은 목숨을 끊으시려던 마음을 돌리시니 천지간의 불바다가 될 뻔한 무서운 징조는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다. 놀라운 하늘의 조화다. 이때 영모님은 기가 막히게 초췌한 모습으로 7중양으로 돌아오시어 다급한 상황이 해결되어 긴장이 풀린 탓인지 어린 아이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투정을 부리고 계셨던 것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28회

한국은 십승인 정도령이 출현하는 곳ियो 천하 만민의 피란처요 안심처이니라



生初之樂(三) 생초지락

天意人心如未覺士者 천의인심여미각사자
 爲人同道何人道 위인동도하인도
 平和從萬世 평화중만세
 天道不絕來 천도불절래
 和氣自得於心 화기자득어심
 開平和仰天祈禱 문평화양천기도
 觀聖世保存深源盤 관성세보존심원반
 初始天下 一氣共歸元 초시천하일기공귀원
 靈水神火明還定 영수신화명환정
 大新天下吾耶心 대신천하오야심
 皆自一心從舜來 개자일심중순래
 日月明天下 일월명천하
 合歸元來春定好 합귀원래춘정호
 四方均和明 사방균화명

하늘의 뜻이 사람의 참된 마음이라

는 것을 모르는 선비란 자들은 사람과 도가 한가지라고 하면 어째서 도가 사람이냐고 한다. 만세토록 마음속에 평화가 따른다면 천도 즉 영생이 끊임없이 이어가리라. 평화가 임하는 소식을 들으려면 하늘(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고 성인의 세상을 보고자하면 십승의 이치가 들어있는 낙반사유를 깊이 생각하여야 하나니 이렇게 하면 봄바람과 같은 화기(和氣)가 마음속에 저절로 자리 잡게 되느니라.

태초에 우주가 하나의 기운(하나님의 기운)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다 같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영수신화(靈水神火) 즉 하도낙서 주역의 이치에 따라 십승인의 밝은 빛 즉 화우로 삼풍해인을 받아 빛으로 원시반본하

게 되리라. 천하가 크게 새로워지는 것은 내 마음에 달린 것이니 모두 한 마음으로 요순과 같은 성군의 마음을 좇으면 다시는 어둠이 없는 광명한 세상이 되리라. (더 이상 음양의 세계가 아닌 무극의 세상, 천당, 극락의 세상이 된다는 의미) 천하가 한마음으로 합쳐 근원으로 돌아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날마다 좋은 날이요 온 사방이 골고루 화평하고 밝은 세상이 오게 되느니라.

訣云虎性無變化 결운호성무변화
 單性之獸 단성지수
 狗性亦無變化狗性역무변화
 田性之獸 구성지수
 牛性有變化難調 우성유변화난측
 曉星天君天使 효성천군천사
 民合稱者牛性也 민합칭자우성야
 豈如虎狗之性也 기여호구지성야
 然即精脫其右 연즉정탈기우
 落盤四乳 낙반사유
 利在十勝預訣傳世 이재십승예결전세
 世人不知可歎奈何 세인부지गत내하
 東北五臺十二城 동북오대십이적
 三南五被青衣賊 삼남오피청의적
 種骨種仁又種茫 종골종인우종망
 萬人傷落幾人腸 만인상락기인양
 桑田碧海混沌世 상전벽해혼돈세
 白豐勝三安心 백풍승삼안심처

靑雀龜龍化出地 청작구룡화출지
 비결에 이르기를 호랑이의 성질은 변화가 없는 단순한 성질의 짐승이요 개의 성질 역시 옛날 승섭 그대로 변함이 없는 짐승이다. 소의 성질은 변화무쌍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니 셋별, 천군천사라고 하나니 백성들이 총칭하여 소의 성품이라 하는 것이다. 어찌 호랑이나 개의 성질과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즉 정(精)자에서 오른 쪽인 청(靑)자를 탈락시키면 미(米)자만 남고 거기에서 찢꼭지 네 개가 떨어져 나가면 십(十)자가 되니 비결과 예언서에 이로움이 십승에 있다(이재전전제在田田과 같은 뜻)고 한 즉 이를 말하는 것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이를 모르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동북 간방에 진리도 없이 세상 사람을 속여 등쳐먹는 열두 도적이 큰 집 다섯을 지어 놓고 있고 삼남 즉 경상, 전라, 충청도에는 푸른 옷을 입은 도적이 다섯이 있느니라. 맹목적인 골수분자, 위선적인 사기꾼, 호리망명한 사람들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한 그들 중 몇이나 양도(양도陽道=빛의 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상전벽해(桑田碧海) 즉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는 것 같이 급격한 대변화와 큰 혼돈이 있어도 양백 삼풍의 십승지는 영원한 안심처가 되느니라. 천지운행의 조화로 삼풍 해인을 가지고 온 십승인 정도령이 출현하는 곳ियो 천하 만민의 피란처요 안심처가 바로 한국 땅이니라. 청(靑)은 청룡이요 백성들이 총칭하여 소의 성품이라 하는 것이다. 서(西)는 백호(白虎), 남(南)은 주작(朱雀), 북(北)은 현무(玄武)를 말한다. 구룡(龜龍)은 하도낙서를 말한다. 따라서 청작구룡화출지(靑雀龜龍化出地)는 6

도 삼락의 3도54궁에 수운(北岳), 4도 63궁에 화운 강증산(南岳), 5도72궁 목운(東岳), 6도81궁 금운(西岳)이 하도낙서의 이치에 의거하여 천지조화를 따라 모두 한국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금운으로 오신 6도81궁 정도령이 감로해인을 가지고 와서 천지공사 즉 죽음의 세상을 끝내고 불사영생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